

만남

2019년 11월
통권 17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다시 위령 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부활에 관한 논쟁-----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근동 지역의 대화와 화해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근동지역에서 대화와 만남과 화해의 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위령 성월

위령 성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칠성사를 넘어서서 여덟 번째 성사라고 불릴 만큼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 날 오후에는 묘지에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묘지축복식 때문입니다. 묘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들도 이날만큼은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묘지를 방문할 정도로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신부님들도 오전에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에는 동네마다 묘지를 방문하고 축복하느라 바쁜 날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참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에서는 묘지가 성당 주변이나 성당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성당은 그나마 성당에서 조금 걸어가야만 묘지가 있지만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많은 성당 주변이 묘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매일 묘지를 찾아와서 꽃을 바꾸어 놓거나 초를 켜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성당 주변은 온통 잔잔한 붉은 빛으로 감도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튼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렇게 죽은 분들과 살아계신 분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묘지축복식이 위령의 날인 11월 2일이 아니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인 11월 1일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종하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이름 없는 성인이 되어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월은 그렇게 선종하신 분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단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원래 고향이었던 하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위령 성월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위령 성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루카 20,27-3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3장 “천년도 당신 눈에는”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저희가 늘 깨어 살아있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0 27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 28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막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 30 그래서 둘째가,
31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 32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 33 그러면 부활 때에

- 20 33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 35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 36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 37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 38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는 영혼의 불사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
니다.

그들은 죽음이 주는 슬픔과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지상의 생명이 끝난 뒤에도 다른 모습으로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슬픈 죽음의 운명에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제자들의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그분을 기억할 때, 그 기억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두가이들은 일찍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영혼이 살아남는다는 데에 대하여 죽은 영혼은 세울(죽음의 세계)에 머문다는 옛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고 쓸모없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논리에 따른 야릇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두가이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답변을 하십니다. 부활의 세계에는 결혼할 필요도 없고 계속 살아남기 위하여 대를 이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계약의 하느님이시기에 소멸하는 인간 생명처럼 사라지지도 않는 분이시며, 죽어야 하는 인간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분께 삶의 희망을 거는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희망의 증인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3장 “천년도 당신 눈에는”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심과 신앙의 향기(Heart and Faith)

[心心 프리 유머]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어느날 아침 순찰 돌던 천국 경비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지옥 경비 마귀에게 따졌다.
"야~니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구멍으로 불법 입국 하잖아. 이 구멍 어떻게 할거야?"

마귀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따졌다.
"야~우리 쪽에서 구멍 낸 증거 있어?"

천사가 약이 올라 말했다.
"아니? 천국에서 지옥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너희 쪽에서 도망가려고 구멍 낸거지.
이 구멍 너희들이 책임지고 막아 알았지?"

"우린 절대 못해."
"좋아, 정 못하겠으면 반반씩 부담하자."
"우리는 한 톨도 낼 수 없어."

막무가내로 우기는 마귀의 배째라는 식에 화가 난 천사가 소리쳤다.
"좋아. 그럼...범대로 하자."

그러자 마귀가 썩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범대로 해봐~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 다 여기 있으니 겁날 거 없지."



31.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공성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문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는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오래 살고, 더 풍족하게 살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결정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발전소에 대해서 교회가 염려를 표명하는 것은 교회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밀양이나 청도 등지의 시민들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이거나 보상금이나 더 받아내기 위한 알뜰한 수 정도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사고방식을 기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technocratic paradigm)이라 부르고 있으며, 인간중심주의와 더불어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제3장) 실제로 과학기술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지식과 학문, 또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내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초사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역사는 과학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점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산물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의 산물은 결국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107항)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과학기술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그 영향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과학기술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은 또한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이윤을 목적으로 모든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며 인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109항)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통제,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지구와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각성을 통한 영성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32. 수저 계급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편에서의 부의 대물림과 반대편에서의 빈곤의 대물림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경제력과 직업 등으로 자신의 수저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아니면 흙수저인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허투루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경제적 상위 1% 또는 10%의 자산 비율 중에 상속과 증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등의 자본 소득의 90%를 상위 10%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통계들이 가리키는 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신화가 되어버렸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50년 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사목헌장」 역시 이러한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토록 풍요로운 재화와 능력과 경제력을 누려 본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완전 문맹에 시달리고 있다.”(「사목헌장」 4항) 또한 “경제생활의 발전이 합리적으로 또 인간답게 지도되고 조정되기만 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때로는 더 자주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또 어떤 곳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퇴보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거대한 군중은 아직도 생활필수품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개발 지역에서도 호화롭게 살며 재화를 낭비하고 있다. 사치와 빈곤이 함께 있다.”(「사목헌장」 63항)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정직이나 성실이라는 가치, 노동과 근검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 윤리와 공동체 의식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의 핵심적 원리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길(「사목헌장」 66항 참조)이기도 합니다.

33. 참다운 평화에 이르는 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적대 세력 사이의 군사력의 우위나 군사무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미 강대국들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전부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무기 사용에서 오는 세계의 막대한 파괴와 그에 따르는 가공할 결과는 제쳐 두더라도 적대 진영 쌍방이 거의 완전히 몰살될 것”(「사목헌장」 80항)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력 위에 세워진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 아니라, 모두의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도 강자의 지배, 즉 전제적 지배나 독재 등의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 역시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올바로 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사 32,17)”(「사목헌장」 78항)입니다. 평화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나 경제적 질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의 핵심 문제는 세상 재화의 균등한 분배와 공동선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우연히 또는 한두 가지의 해결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계속해서 추구되고 지켜져야 하고 이상을 향해 점점 접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동선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평화는 결코 한 번에 영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사목헌장」 78항)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수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평화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사회 질서의 열매(「사목헌장」 78항)입니다. 올바른 사회 질서는 언제나 인간을 지향해야 하며,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사목헌장」 26항)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 질서나 정치적 질서가 인간보다 높은 서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질서에서 ‘인간이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사목헌장」 63항)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도된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평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작가 미상)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않는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땅과 같이
얻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환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미질 쟁기질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땅과 같이 찢박받고 고난당할수록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소서.

모진 풍파 극복하며
새 생명 키워내는 땅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름 모를 들풀과 잡초에게조차도
자기를 내어주는 땅과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넉넉한 사람 되게 하소서.

소리 없이 자기 몸을 가르며
씨앗의 성장을 돕는 땅과 같이
주변 사람의 변화를 돕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질문

루카복음 16장에 불의한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정직하다기보다 잔머리꾼인 집사를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음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루카복음 16장에는 주인행세를 하다가 쫓겨나게 된 집사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주고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른 집사인데 칭찬을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집사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집사의 영리함과 융통성을 본받으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어서 속이 많이 상해서 하신 말씀인 듯합니다.

우리는 앞뒤가 꼭 막힌 사람들을 일컬어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혹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만약 규칙 없이 산다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너무 엄격한 경우 그래서 규제가 심할 때는 쥐 잡는다고 놓은 덫이 고양이를 잡듯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엄격한 규칙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항변합니다. 이들이 왜 규칙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무거운 규칙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적 자신감,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자기평가로 인해 그런 덜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자만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잔소리하기를 마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언급해서 상대방 속을 건드리고는 상대방이 반격하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억울해합니다. 구제불능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인데 알아듣지 못한다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하는 상대

방들이 입도 뻥끗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그리 좋지 않고 그런 연유로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사처럼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은 소리라도 일단 들어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벽창호인지 숙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개 벽창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꼴통이라거나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혹평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잘난 척을 하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병적 콤플렉스를 누가 건드릴까 두려워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안 보려고 규칙에 집착하고 자기 안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인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덜떨어진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고 자신보다 수준 낮게 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우같은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곰같은 며느리는 데리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처럼 살 자신이 없으면 짝퉁 성인 노릇을 그만하고 집사처럼 영리하고 융통성 있는 삶이라도 살 일입니다.



★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11월(조명연 마태오 신부님)

제가 생활하는 사제관 냉장고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곧바로 꺼내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비롯한 각종 반찬들이 있고, 또 맛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역시 냉장고 안에 있어 언제든지 곧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에는 이렇게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냉동실 안에 꽂꽂 얼려 있는 국이나 밥이 있으며 음식의 맛을 돋우는 파나 마늘, 고추 등 역시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필요 없다고 버릴까요? 아니지요. 데워서 먹거나 아니면 조리를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이 냉장고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꺼내어 놓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과 시련입니다. 솔직히 고통과 시련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는 나의 것으로 간직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크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고통과 시련을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요리하듯이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소중한 나의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도 피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세상 안에서 기쁘고 힘차게 살아줄 수 있는 힘이고, 더불어서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려 지는 것은 아마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라고 하지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누렸다고 해도 하

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삶은 짧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모습은 구원의 길에서 가까운 지, 혹시 잠시 동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7)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후회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요?

돌멩이를 던질 때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돌멩이를 위에서 떨어트리면 자동적으로 땅을 향합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손에 들고서 힘껏 던지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쭉 날아갑니다. 바로 돌멩이에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돌멩이의 무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돌의 무게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중력에 의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 정도로 달릴 때의 무게는 글썽 500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추돌 사고를 내면 마치 종이를 구기듯이 심하게 구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속도를 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냥 저절로 힘을 빼놓고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점점 좌절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이 아닌 희망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가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향하면 어떨까요? 그 방향에 맞춰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김권최 점우효 선애진	17일	엘리사벳	허(김)영란 김에리자
5일	엘리사벳	송오박 옥세민 자숙주 자경미 자벨	22일	체칠리아	김이이 애영석 란희희 이민효 희숙
10일	레오	최김추 장현연 용일구	30일	안드레아	김권김 영지삼 경연용 김성곤 허길조
17일	빅토리아	김구 귀자 숙옥		안드레아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22일	체칠리아 (마리 세실)	조영실(B)
16일	젤트루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유혜선(B)
17일	엘리사벳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11월 성가번호 ❖

11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27	211	151	227
10일	65	218	166	423
17일	41	48	517	436
24일	찬 양 미 사			

❖ 1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청년회
10일	최성자(벨라뎃다) 김매자(베로니카)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17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1구역
24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2구역

❖ 평화의 기도 경상도 버전

죄그만 나지만 예/고마 당신의 도구로 꼭 써 주이소./우췌거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예/사랑을 억수로 주시고 예/찌지고 뵙고 한다 카문 예/내사 마 먼저 빌게 하이소./미잖은 게 있으믄 예/마 꼭 받아 주이소./찌부둥한 게 있으믄 예/그저 희망을 심어 주이소./위로받기보다는 예/다 지가 먼저 달 래고 예/이해받기보다는 예/내사 마 밑에 서 있게 하이소./그라고 사랑받 기보다는 예/마 지가 먼저 사랑해 뿌기라예./하믄 예 데깁이지예./지를 그 냥 마 꼭 주뿌리면/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카든데/맞지 예, 하모 평화의 주님요,/하찮은 나지만 예/당신의 도구로 막 써 주이소./내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췌습니데이.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주일헌금	211,04	223,90	205,01	226,61
헌납금	20	390	90	0
구작입금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20.00 * 헌납금 합계 72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9월 23일 - 2019년 10월 21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헌금납부 :

정마리아, 최현봉, 홍종각, 최순남, 최장용, 김계희 Tunas,
 황영선, 최아나벨,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현영애, 이정수,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Raniztsch, 이현묵, 심동근,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이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정순문, 김경렬, 한말조,

◆ 구작입금 :

허채열, 이경규, 최화영, 이영원, 육종인, 강일남, 홍경영,
 김춘옥 Zerbock, 이중지 Rother,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김치수, 김대현, 김형웅, 김동수, 김유석,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이영희 Eggerstedt, 백정선, 박준병, 남궁춘배, 허두옥,
 허길조,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종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 주일 주일미사 후에 함께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2. 11월 1일 금요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3. 11월 2일 토요일 위령의 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11시에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미사 후 먼저 돌아가신 교우들의 묘소를 참배하는데 무덤축성과 함께 꽃과 촛불을 봉헌합니다. 미사장소 주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4. 11월 3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 만남성당에서 사목월례회가 있습니다.
5. 11월 5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6. 11월 9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 11월 10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 11월 13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 11월 22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7. 11월 17일 일요일 주일미사에는 Diasporasonntag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11월 23일 토요일 꾸리아에서 주관하는 연차 총 친목회 행사가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9. 11월 24일 일요일은 찬양미사로 봉헌되고 그 다음 주일(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예수성심성당에서 대림 바자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10. 11월 28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0월 미사는 10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3. 11월 미사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4. 10월 16일 수요일에는 독일 네덜란드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께서 브레멘을 방문하셔서 반갑게 만나 뵈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0월 공동체 미사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신부님의 기차 연착으로 인하여)에 St. Antonius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11월 공동체 미사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St. Antonius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0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10월 12일(토) 17시에 연중 제28주일 주일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10월 25일 금요일 17시에 Dom 성당에서 묵주기도 성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3. 11월 미사는 11월 9일 토요일 17시에 있는데 미사 1시간 전에 선종하신 교우(김원철 요한 형제님)의 묘소를 방문하여 묘지 축복과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1월(위령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모든 성인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2	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브레멘 공동체
3	일	연중 제31주일,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사목월례회	
4	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5	화		믿음의 샘 뿌리아	
6	수			
7	목			
8	금	입동	2구역 소공동체	
9	토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오스나브뤼크
10	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12	화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13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4	목			
15	금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2차 헌금
18	월			
19	화			
20	수			
21	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22	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소설	4구역 소공동체	
23	토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24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찬양미사	
25	월			
26	화			
27	수			
28	목		연령회 월례회	
29	금			노르웨이 공동체
30	토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대림바자회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